의원 30명 바른미래, 12명 당권 도전

손학규 출사표 … "선거제·정치제도 개혁 마지막 소명"

바른정당 출신 4·국민의당 8…11일 예비경선 6명 압축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에 8일 손학규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모두 1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손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소명으로 선거제도를 비롯한 잘못된 정치제도를 바꾸겠다"며 9·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손 전 위원장은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낡은 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정당, 이것이 바른미래당이 걸어야 할 길"이라며 "미래형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개혁통합정당'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의 통합을 통한 개혁의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바른미래당 탄생의 대의는 올바른 길이었고 소중한 가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위원장은 "다당제에 맞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하고 우리 정치의 새판짜기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재영입을 통한 세대교체 등도 약속한 손 전 위원장은 "이제는 바른미래당의 통합정신을 살리고 뿌리를 내려 앞으로 전개될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의 중심을 이루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대 후보등록을 받는다. 이날 현재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은 하태경·정운천·신용현·김수민 등 4명이다. 여기에 손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환·장성민·권은희 전 의원, 이수봉 전 인천시장 공동위원장, 장성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 허점도 전 김해시장 후보, 이준석 전 노원병 지역위원장 등 8명의 원외 인사가 당권에 도전한다.

다만, 이들 중 김수민 의원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와는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몫 최고위원에 출마했고, 신용현 의원과 권은희 전 의원은 여성 몫 최고위원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있다. /연합뉴스

출마자 중 하태경·정운천 의원과 권은희 전 의원, 이준석 전 위원장 등 4명만 바른정당 출신이고, 나머지 8명은 국민의당 출신이다.

후보들은 은연 중에 '안심'(안철수 전 의원 의중)과 '유심'(유승민 전 공동대표 의중)을 내세우는가 하면 물밑에서 합종연횡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날 손 전 위원장의 출마 회견에는 앞서 출마 선언을 한 신용현 의원이 함께 자리한 것은 물론, 국민의당 출신 지역위원장들과 안 전 의원의 측근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장성민 전 의원 출마 회견에는 정운천 의원이 함께해 두 후보가 연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며, 선거 결과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에, 2~4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에 오른다. 다만, 4위 안에 여성이 없으면 여성후보 중 최다 득표자가 4위 득표자 대신 최고위원이 된다. 청년위원장을 겸하는 청년 최고위원은 별도 선출한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0일 후보자 정견발표를 한 뒤 11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해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예비경선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 최다 득표자가 컷오프 기준인 6위 안에 들지 못해도 6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민주 당권주자 모금 경쟁도 치열

경선·문자 비용 등 수억원…개인 후원계좌까지 총동원

민주당의 8·25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당권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경선 비용에 허리가 휘고 있다. 우선 당권주자인 송영길, 이해찬 후보는 이달 초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 일찌감치 채워 국회의원 후원계좌로 '추가 모금'까지 받고 있다. 세 후보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 1일 개설된 김진표 후보의 계좌에도 소액 후원이 잇따르면서 한도액 달성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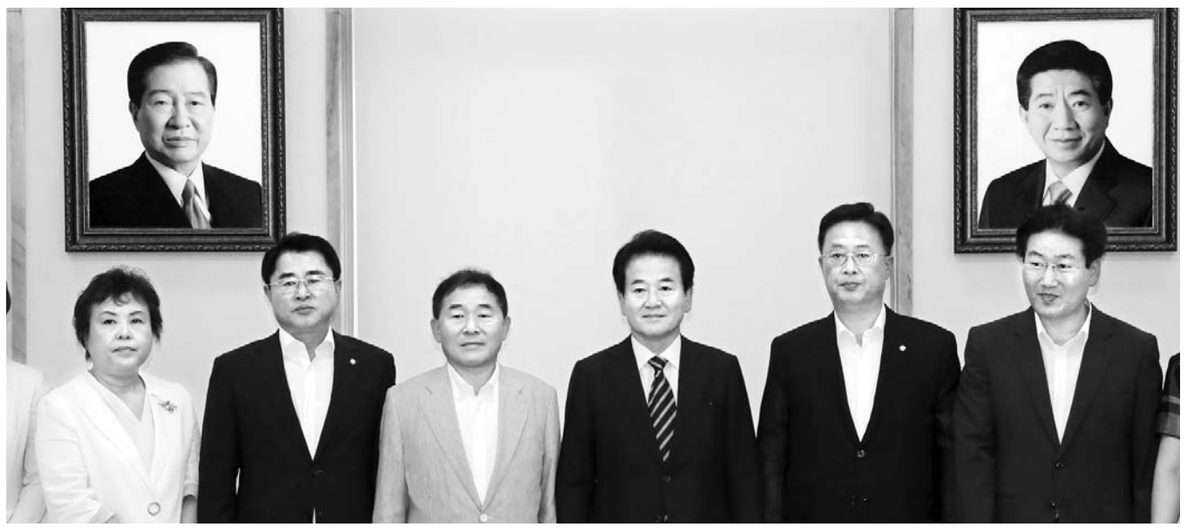
정치자금법상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경선 기간 총 1억5000만원까지 별도의 계좌로 후원을 받을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개인 후원계좌도 갖고 있어서 소위 '쌍끌이 모금'을 할 수 있다. 당권 주자들이 후원 모금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경선 비용이 최소 억 단위 이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각 예비경선(컷오프)에 앞서 낸 기탁금 500만원에 컷오프 이후 본선 기탁금으로 9000만원을 당에 냈다. 여기에 사무실을 꾸리는 등 캠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이고 각종 홍보·유세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더하면 수억원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권리당원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1통을 보내는 데만 약 2000만원이 드는 고비용 구조를 들어 전당대회가 '쩐의 전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적 지적도 나온다. 각 후보는 전국 70만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에 보내는 문자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권리당원의 ARS 투표 결과는 당락을 가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권 주자 측 관계자는 "문자는 총 5번까지 보낼 수 있는데 건당 1800만원 정도가 들며 여의도 캠프 운용에도 최소한의 인건비 등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며 "이번에는 이렇게 간다고 해도 다음에는 경선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경선 비용에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수천만 원대의 문자 홍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자금 동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고위원 도전에 나선 8명 후보 가운데 후원계좌를 만든 후보는 5명(박주민·설훈·박광온·황명선·남인순)에 불과하다. 모 최고위원 후보 측 관계자는 "대의원이야 발품을 팔면 되지만 권리당원의 경우, 최소한의 1~2회의 문자 발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막판에 한 차례 문자 발송을 통해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장 대여료와 각종 투표 관리 비용을 포함해 총비용은 약 15억원이 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



평화당 "DJ·노무현 정신 계승"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이 8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앞서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김 만난 정동영 "선거제 개혁 도와달라"

〈미애〉·〈병준〉

민주당·한국당 예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해 "이제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주권자로서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마련되는 기존 정치질서의 대변혁을 불러올 때라 생각한다"며 "2년간 애쓰신 추 대표께서 유종지미(有終之美)로 선거제도 개혁에 큰 역할 해주십사 부탁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전화 주셨길래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부탁도 드렸다"며 "촛불혁명에 관해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진국이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도 아시아 최고가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추 대표와는 1996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정치를 같이 시작한 동기생이다. 김대중 총재를 모시고 최초의 정권교체를 위해 동지로서 함께 뛰었던 오랜 인연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정 대표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을 정기국회에 여러 개혁입법들이 쌓여있는데 우리가 국회 불신, 정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또 손을 맞잡아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오전에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김 위원장께서) 선거제도 개혁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평화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우당(友黨)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30년 전 대통령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꿔 전두환 체제를 극복했듯이 이제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촛불정신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3철, 민주당 전대 '중립 선언'

이호철·양정철·전해철 회동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전해철 의원 등 이른바 '3철'이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 중립을 지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당의 향후 2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8·25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현실정치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이 전 수석과 양 전 비서관은 중립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전 의원 역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입장정리는 최근 당권 경쟁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불필요하게 거론되거나 특정 후보 지지 논란에 휘말릴 경우 자칫 문 대통령에게 부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출마 후보들 모두 당의 훌륭한 리더이고 좋은 비전을 갖고 있는데 친문이냐 아니냐 또는 대통령과 관계로 당권 레이스 프레임이 짜이는 듯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경쟁 등으로 전대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초래되거나 당권 경쟁에 후유증이 생기는 것은 문재인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 기자 jkpark@

이개호 농식품장관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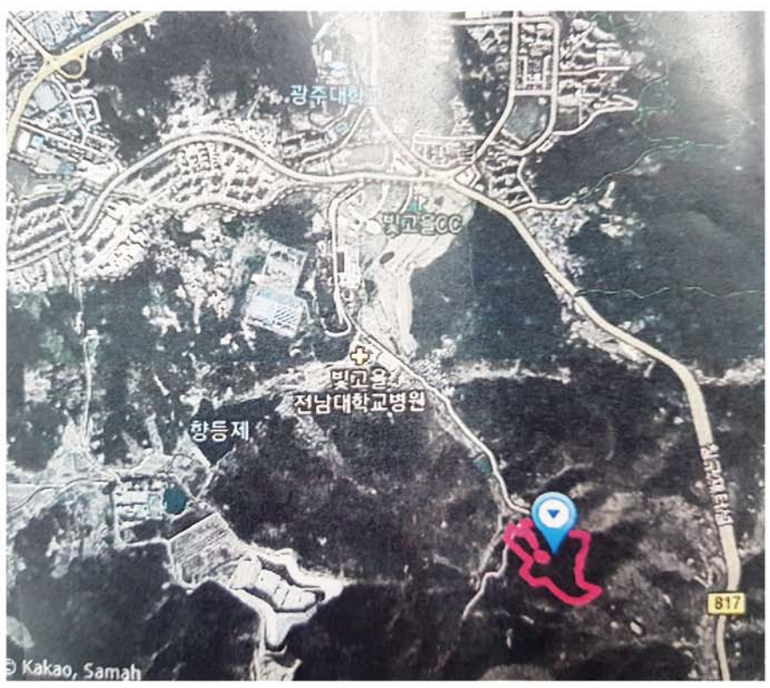
이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측에서 이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불법 건축물 임대 문제와 논문표절 의혹 등에 대한 질문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만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평이 좋았다는 점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